

시론



오선택 목사
하늘정원교회

현대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등록 인구가 전체 노인등록 인구 대비 20%에 도달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종종 노인은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혹은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불필요한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은 수십 년간 삶을 살아오며 지혜와 경험을 축적한 존재이다. 이들의 가치는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닌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는 곧 모두가 존중받는 사

칼럼



신성관 목사
더드림교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른 김장하'는 진정한 어른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모를 성찰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교육과 사회 환원에 헌신하면서도 그 후한 직함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던 김장하 선생의 삶의 궤적은 한국 기록교과, 더 나아가 종교의 본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며 배울 점을 제시합니다.

섬김의 본질: 소유가 아닌 나눔

김장하 선생은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기보다, 학교가 지역 사회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성경의 가르침(막 10:44)을 묵묵히 실천한 삶이라 할 수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

회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면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화에 뒤처졌다고 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 노인 역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며 소통이 가능할 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진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문화 생활 지원 등의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막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된다.

셋째,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학교 교육을 통해 노인 존중의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하며, 기업과 공공기관도 관련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대중 매체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이로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넷째,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도 필요하다. 마을 회관, 복지관 등에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태도 변화가 핵심이다. 일 상에서 노인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들, 예를 들어 인사를 건네거나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은 큰 의 미를 지닌다. 가장 내에서도 노인을 단순히 부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존중이 쌓일 때 비로소 사회 전체에 변화가 일어난다.

노인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이다.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나이 들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결국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른 김장하’가 한국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외형적인 성장과 소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형 교회 건축, 교세 확장을 위한 경쟁, 그리고 교회 재정 운용에 대한 불투명성 등은 교회가 진정으로 섬김의 본질을 잊고 소유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김장하선생의 삶은 교회가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주장하기보다 기꺼이 나누고 비워내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일깨웁니다.

청년들에게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다가가기 위한 교회의 과제

김장하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
한 교훈은 바로 '이름'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
회는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
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청년들에게 제언할 때, 그들의 목소리
가 '이름'의 따뜻한 조언이 아닌 '판례'의 잔소리모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교회들, 그리
고 목회자들을 이념으로 존경하기보다 그저 기성세

대 중 한 부류, 즉 ‘꼰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지금까지 개인적이기도 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진정한 어른
의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김장하 선생처럼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설교
하기보다. 소박하고 겸손한 삶 속에서도 기쁨과 의미
를 찾을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 또한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빚으로 극복하라'는 식의 추상적인 조언을 넘어,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불안정한 미래, 관계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와 목회자가 청년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된다면, 결혼과 출산은 물론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은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교회 자체가 감동과 선함과 같이 존경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길입니다.

社説

호국(護國)과 새 정부(政府)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하던 나라가 6.3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제12대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이제껏 대통령의 정부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제 개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월은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는 6월 6일 현충일을 국가추념일로 제정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애국심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이분들의 은혜와 공훈을 보훈(報勳)하는 달로 정하여 지켜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한 진정한 애국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번 대통령은 취임 선서문을 낭독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새 정부에 대한 많은 개호적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새 대통령 선출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령의 위헌 선포와 내란죄를 심판하는 성격의 선 거이기에 전 정부의 임기가 5년을 채우 지 못하고 3년 만에 치루는 상황이기에 이대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덮여지 는 현실 이 되었다. 투표 결과 49.42%(17,287,513표)를 얻어서 대한 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이다. 국민들은 도덕적 기준보다는 능률 을 더 높게 평가하여 실용적으로 선택 했다고 이해한다. 이처럼 시대의 의 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또한 이 사 대의 시대정신은 분열된 국민들의 사 음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국제 정서를 살펴볼 때 민 생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 다. 그리하면 분열된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리라.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의 호국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시대는 국가가 넘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상황에서 애국심(愛國心)이나, 호(護)國心이나 하는 것은 나치들이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의 발전과 부강한 국가로 세우지는 길은 많이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부국(富國)을 이루는 길, 국방을 통한 하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길,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길, 좋은 문화를 세계에 확장하는 문화 강국을 만드는 길, 그리고 선아가 열방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세우는 일 등이다.

새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국민을 보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여 호국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국가의 상황에 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청산을 최소한으로 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과의 외교 문제, 미국과의 무역 관계의 분체를 쥘의 면밀하게 살펴면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제안과 실천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모델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of 자유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대한국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는 솔선수범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을 구원자로 섬기는 봉사자적 자세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국민들은 정부를 지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김정 2/2).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홍사 진 사장 김종현 편집인권순달 후원회장박근주 인쇄인배성현
(주)성경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중구로 인왕사로 1가길 11(해운동 1-29 충화회관) 1-29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신청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 (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 (주식회사 성결신문사)

[illegible]